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인문계열 모의논술고사

지원학과(부)	가번호	성 명

〈유의사항〉

1. 답안에 제목을 쓰지 마십시오.
2. 답안은 하나의 완결된 글로 쓰십시오.
3.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8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점합니다.
4.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에는 감점합니다. 단,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단어 또는 구를 인용할 수는 있습니다.
5. 수험생의 신원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불필요한 표시가 있는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 문제 1 】

(가)의 화자가 제시한 시행 방법의 주된 행위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기술하고, 해당 행위를 실행할 경우 (나)의 독자, (다)·(라)의 화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 및 내용을 근거에 기반하여 서술하시오. 단, (나)의 경우 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하시오.(800±100자)

제시문 (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나 분야에서 출발하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인 체험』을 좋아합니다. 주인공 버드의 아내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두개골 결손으로 뇌 일부가 빠져나온 상태로 태어납니다. 아들을 살리려면 엄청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살아나도 식물인간이나 장애아로 살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만약 분유량을 조금만 줄인다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죽을 겁니다. 평생 장애 아이를 돌보게 될지도 모르는 쉽지 않은 상황 앞에서 버드는 고민에 빠집니다. 아들을 죽이긴 쉽고 살리긴 어렵습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아프리카 지도를 사고,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었던 젊은 아빠 버드는 절망합니다. 아들이 살아난다면 그의 계획이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여자 친구와 아프리카로 몰래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묻습니다. '수치스러운 짓들을 무수히 거듭하여 도망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것일까? 대체 어떤 나 자신을 지켜 내겠다고 시도한 것일까?' 그는 '난 이제 도망치는 건 그만둘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려고 빗속에서 택시를 타고 질주합니다. '만약 내가 사고로 죽어서 아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내 삶은 말짱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나중에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신을 말하다』를 읽다 보니 그는 어려서부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좋아했고 실제로 삶에서 선택해야 할 때마다 허클베리 핀의 이 말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좋아, 지옥에는 내가 간다." 저는 이 말이 『개인적인 체험』에 나오는 주인공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곧 또다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들추어 볼 것입니다. "지옥에는 내가 간다."란 말을 찾아서요. 이렇게 책 속의 책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신곡』 또한 좋아합니다. 저는 언제 『신곡』도 읽어야겠다고 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두던 『신곡』을 실제로 읽게 된 계기는 현실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현실에서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 읽는 또 다른 목록 작성법이 나옵니다. TV에 어느 장례식장의 유족들이 나오는데, 한 어머니만은 눈물을 꾹 참고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왜 울지 않느냐는 질문을 기자가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가 자꾸 울면 우리 아들이 좋은 데 못 간다고 해서."라고 말하며 입술을 꼭 깨물며 눈물을 참습니다. 좋은 데는 천국이겠죠. 장례식 때 유족들은 관을 쓰다듬으며 마지막 인사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 천국에 가. 그곳에서 여기 일은 다 잊어버리고 부디 행복하게 살아. 그곳에서 시름 걱정 없이 살아. 아프지 말고 울지도 말고. 거기서 만나자. 먼저 가 있어."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정말 위로가 안 되는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장례식을 보면

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어떤 곳일까, 단테는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결국 『신곡』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들은 우릴 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로 영원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릴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우릴 항상 지켜봅니다. 우리가 탄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애가 타서 말합니다. 합창합니다. "안 돼. 그쪽이 아니야. 뱃머리를 돌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품었던 천국의 소망 같은 것들이 현실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시문 (나)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 이후 향신료, 비단 등 동양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이 동서 교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자 동양과 직접 교역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등으로 동양에 관한 호기심이 증가하고 천문학, 지리학,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 사용 등으로 원양 항해가 가능해지자, 유럽인은 새로운 항로를 찾아 나섰다. 지중해를 통한 향신료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서아프리카 해안을 돌아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우 디아스가 '희망봉'이라 부른 아프리카 남쪽 끝에 도착하였으며, 바스쿠 다 가마는 이슬람 상인의 도움을 받아 인도의 캘리컷에 도착함으로써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다.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대서양 항로를 개척하여 아메리카 대륙의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였다. 마젤란 일행은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횡단하고 최초로 세계를 일주하였다.

이러한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에스파냐는 아스테카와 잉카 제국을 정복한 뒤 금광·은광 개발에 몰두했는데, 아메리카에서 채굴한 많은 양의 금과 은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물가 폭등 현상이 나타났으니 이를 '가격 혁명'이라 한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항로를 개척한 후 노예무역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유럽인들이 아메리카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작물을 재배하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노예무역을 확대하였다. 유럽인은 총, 직물 등을 싣고 서아프리카로 향하여 흑인 노예와 교환하였으며, 흑인 노예를 태우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농장주에게 팔았다. 그리고 노예를 판매한 대금으로 설탕, 커피, 담배 등 플랜테이션 작물을 사들여 유럽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유럽과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을 중심으로 대서양 교역이 이루어졌다.

제시문 (다)

아파트 빈터에 잘려 버려진 버드나무를 '옳다구나' 하고 시골의 연구소 지소에 실어 나른 때는 지난 겨울이었다.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껍질은 대기오염 탓이었는지 거무튀튀했는데, 유난히 무거웠다. 도끼질을 해 난로에 집어넣었더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잘 타지 않았다. 방금 잘린 나무라 수관에 물이 잔뜩 차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창고 뒤쪽에 아무렇게나 던져 놓고 마른나무를 먼저 태우는 것으로 골짜기의 겨울을 났다. 그리고 봄이 왔고, 이내 초여름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지난주, 우연히 창고 뒤쪽의 목재를 정리하다가 보았는데, 놀라워라, 잘린 버드나무 몸통에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뻗어 있었다. 제법 무성했다. 토막 난 버드나무는 외진 데서 살려고 기

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도마뱀 꼬리가 눈앞에서 쑥쑥 자란다 한들 이보다 놀랐을까. 나무토막은 "비록 영문 없이 뿌리는 일었지만, 결단코 죽지 않았다오."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듯했다. 그런 외침보다, 푸르디푸른 잎을 어떻게 하면 햇살을 더 많이 받아 뻗칠 것인가, 오로지 내 할 일은 그뿐이라는 자세였다.

잘 말려서 겨울에 땔감으로 쓰리라는 생각은 그 순간 사라져 버렸고, 악착같이 살겠다는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거기 몰두하게 되었다. 동강 난 몸체만 남았지만 싱싱하게 푸른 잎을 밀어 올린 버드나무의 생명력은 식물에게도 혼이 있다면, 그것은 결단코 하급의 층위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잎이 특히 무성한 것들만 네 토막을 골라 마당 복판의 작은 우물에 일단 담가 두었다.

제시문 (라)

혼돈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서 확실한 단 하나이며,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주인이다. 과학자인 나의 아버지는 일찍이 내게 '열역학 제2법칙'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가르쳤다. 똑똑한 인간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에 맞서 싸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과학자, 더 정확히 말해 어류 분류학자는 20세기 초반, 이 진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906년, 지진으로 그가 평생을 바쳐 온 수천 개의 어류 표본들이 박살이 났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이 깨진 그 폐허 속에서 바늘 하나로 물고기와 이름표를 찾아 꿰매 붙이는 작업을 반복했다. 다음 지진 때는 그의 작업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는 도전적인 소망을 담은 채.

이 과학자의 이야기는 20대 초반 과학 분야의 전문 기자로 자리 잡아 가던 나의 관심을 끌었다. 난 이 얘길 듣자마자 그가 바보라고 생각했다. 바늘 하나로 이뤄낸 혁신은 너무 허술하고 너무 근시안적이며 자신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지를 보여 주었다. 그는 내게 오만에 대한 교훈으로 어류 수집계의 이카로스처럼 보였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손으로 직접 내 인생을 난파시킨 뒤 그 잔해를 다시 이어 붙여보려 시도하고 있을 때, 문득 나는 이 분류학자가 궁금해졌다. 어쩌면 그는 무언가를, 끈질김에 관한 것이든, 목적에 관한 것이든, 계속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든 내가 알아야 할 뭔가를 찾아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가당치 않게 커다란 믿음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유난히 막막한 기분이 들던 어느 겨울 오후, 나는 구글 검색창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고, 덥수룩한 팔자수염을 기른 늙은 백인 남자의 세피아톤 사진과 마주했다. 눈빛이 좀 강경해 보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경고성 교훈담인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범?